

격려사

먼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명우스님께 심심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8년간 회장으로 재직하시며 비구니회를 이끌어 오신 명성스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단의 6천여 비구니 스님을 대표하는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1968년 대한불교비구니 우담바라회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내딛은 이후, 43년의 세월동안 교육과 수행, 포교와 복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실천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출범당시 불교현대화의 역군 양성,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포교의 합리화, 중생제도를 위한 사회사업 전개라는 과제를 세워 청정 수행가풍을 지키는 한편, 각종 포교활동과 지역사회문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설립 취지에 ‘의존과 맹종의 누습을 개혁하고, 과거의 계통을 되살려, 삼천년래의 사무친 서원을 성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제 비구니스님들이 한국불교사의 당당한 주역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여년이 흐른 지금, 선언에 걸맞는 역할과 활동을 찾아내어 한국 불교 제반 분야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시대적 소임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역사는 물론 인류의 역사에서도 모든 변화는 새로운 자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구니회의 출범 역시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에서 비롯하고 우리 시대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한국불교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비구니회관이 그러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범 50주년을 향해가는 비구니회는 다시 한 번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내외적으로도 비구니회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여망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종단에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종단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명우 스님께서 줄탁동시(倅啄同時)라는 공안을 언급하신 것처럼, 알을 깨고 나오려는 노력과 그것을 밖에서 도와주는 힘이 하나로 뭉칠 때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천년래의 사무친 서원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우리 승

가의 미덕이 화합이듯이 이제 명우스님을 중심으로 모든 비구니스님들이 화합하고 또 화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우스님은 교와 선을 두루 겸비하셨으며, 일찍이 종단 최초의 상임포교사로 활동하시며 포교 취약지에서 성심사를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일구어 내셨고, 또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특별한 성과를 이룬 것은 물론 후진 양성에도 혼신의 힘을 쏟아 오셨습니다. 이제 그 필생의 원력을 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해 다하시겠다고 하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스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명우스님이 이룩하신 성취를 볼 때, 명성스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스님들과 여러 비구니 스님들이 이루어 낸 성과를 잘 계승, 발전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취임을 하시는 두 분의 스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격려에 대신합니다.

불기2555년 11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